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오왕석 기자 / 기사작성 : 2025-10-15 14:11:52

임직원의 손길로 모인 폐건전지와 폐의약품 평택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평택=오왕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중요한 일환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가정 내에서 폐건전지 1570개와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평택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폐건전지와 폐의약품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폐건전지에는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폐의약품의 경우 다양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에 노출

되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폐건전지와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임직원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다 쓴 건전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모아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임직원의 소중한 손길로 모은 폐건전지와 폐의약품을 각각 평택시 자원순환과와 보건소에 전달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